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⑧신해품 ①장자(長者) 공자(孔子)의 비유

지금까지 성문(聲聞)과 연각(緣覺)들 즉 2승(二乘)은 성불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문인 사리푸타(舍利弗)가 수기(授記)되는 것을 본 마하카사파(大迦葉), 마하마우드가리아니(大目犍連), 마하카타야야니(大迦葉), 수부티(須菩提) 등의 네 사람의 대성문(大聖聞)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완전히 이해하여 다시 향상(向上)하려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자신들이 불자(佛子) 즉 부다-푸트라(Buddha-putra)임을 천명한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 곁에서 실종되었던 공자(孔子)가 여러 나라를 유랑하기를 50여 년, 지금은 완전히 타락하여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떤 성(城)을 찾아왔다. 한편 아버지인 장자(長者)는 이곳 저곳 아들

진 재산은 자기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비열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부끄러워 하며 넓은 마음을 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장자는, 자기의 입종 때에 이르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의 친아들이니 내 모든 재산을 그에게 물려준다"고 선언했다. 그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 돌연히 생기자 "지금 이 보배(寶藏)가 스스로 내 것이 되었다"고 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이제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째, 장자와 그 아들이 원래부터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장자인 아버지는 부처님으로, 그 아

중생은 원래 부처님 아들

가르침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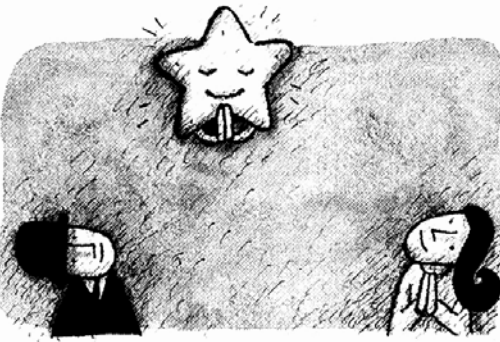
을 찾아 해매다가 우연히 아들이 찾아온 그 성(城市)에 삶의 터전을 꾸리고 재산을 늘려 지금은 큰 부자가 되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공자가 예고 없이 장자의 저택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장자는 한눈에 그가 자기 아들이임을 알아보고 급히 부리는 사람을 시켜 그를 데리고 오도록 했다. 그러나 아들은 뜻하지 않은 일에 놀라, 붙잡히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 지레 겁을 먹어 기절하고 만다. 장자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몰라보고 심근(心筋)도 완전히 타락해 버린 것을 알고 일단 그 아들을 놓아 보내고 나서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냈다. 그는 은밀히 두 사람을 보내 그 아들에게 접근시켜 자기 저택에 데리고 와서 일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장자는 이것저것 방편을 써서 그 아들에게 접근하여 차츰차츰 익숙해지도록 했다.

그러기를 20년이 흘렀다. 공자는 아버지인 장자와 마음이 서로 통하여 재산 관리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공자는 자기가 고승인이라는 처지를 잊지 않고 마음을 더욱 의연히 하여, 장자가

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어린 애는 직접적으로는 이 비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마하카사파(摩訶迦葉)를 비롯한 성문들에 의제(擬制)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버리고 여러 나라를 찾아 유랑(流浪)하는 공자는 지금껏 부처님의 유인에도 접하지 못하고 따라서 성문으로도 되지 못한 미혹한 범부라고 한다면, 이 공자는 생사의 세계에 침몰(沈淪)하는 미혹한 중생으로서 우리를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까지도 포함한 우리 모든 중생이 원래부터 부처님과 친자관계에 있는 것이 된다. 즉 우리를 모두가 본래적으로 부처의 아들, 불자(佛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법화경>이 말하고자 하는 점이다.

스승이 제자의 득법(得法), 또는 설법 등을 증명하고 인가하는 경우를 인가(印可)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과 백을 한 네 사람의 큰 성문들에게 각각 제6수기(第六受記)를 수기하게 된다. ■무설정사 조설



그림·문병성

佛法대로 운행하는 우주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⑩

상의적 수수관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은 공존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의 주고받음 즉 에너지의 상의적 수수관계라 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음이 있고, 받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줄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의 주고받음이라는 상의적 수수관계는 존재의 한 양식이기도 하다.

태양계 내에서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 태양과 중력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며, 각 행성들은 주위의 다른 행성들과 끊임없이 인력을 주고받고 있다. 그러기에 태양계는 살아있는 것이다. 별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안정된 상태를 찾아 진화해 간다. 특히 별들이 많은 모인 성단에서는 별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좁기 때문에 조우, 섭동이 잦다. 그래서 상의적 수수관계가 역동적으로 일어나 각 별들이 지닌 초기의 고유 특성이 사라지면서 차별과 대립이 없는 이완 상태가 달성된다.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

들의 경우에도 에너지를 주고받는 수수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된 상태를 찾아 진화해 간다. 결국 우주 내의 만물은 서로간에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상의적 수수관계를 통해 보다 발전된 단계로 계속 진화해간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 보면 우리는 우주적인 긴 진화과정의 한 단면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박에 없는 경험적 인식 세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상의적 수수관계를 통한 이완의 세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긴 우주적 시간 척도를 갖는 별의 세계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별들은 조우, 섭동에서 일어나는 상의적 수수관계에 따른 변화에 최소 작용의 원리로 대응한다. 즉 최소 에너지로 순응, 적응하는 방법을 찾고 항상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최소 작용의 원리는 급격한 에너지의 주고받음이 일어나는 혼돈상태에서도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별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 전체에서 최소 작용의 원리는 성립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산천의 초목이 유형으로 태어났다가 무형으로 사라지는 자

별들은 서로 끊임없이 에너지 주고 받으며 안정된 상태로 진화

후의 자신은 동일하지 않으며,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이 자기 초월성이자, 초월성을 달성하는 과정이 자연의 섭리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에 따라 불멸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지기도 한다. 인간은 우주 속의 한 개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연히 우주의 섭리를 따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인간 속에 우주의 불멸이 내재해 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우주의 천체들은 불멸을 잘 따르면서도 새로운 불멸을 만들어 가는데, 인간은 불멸을 잘 따르지 못하면서 고정된 불멸에 얽매는 것은 아닌가? <우마경>의 제자품에 이런 말이 있다. "...법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으니 항상 어디나 머물지 않기 때문이며, 법은 공에 따르고 항상 없는데 따르며 인연 따라 지어진 것은 것을 순응하며, 법은 좋고 나쁜 것을 여의고 법은 더하고 덜함이 없으며, 법은 돌아 갈대가 없으며, ...법은 높고 낮은 것이 없으며, 법은 항상 머물고 흔들리지 않으며, 법은 온갖 생각하는 경계를 여의었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그늘진 이웃 없어야죠” 314개 단체 ‘나눔의 삶’

호주의 불교단체 대부분이 수행의 방편으로 불우 이웃들을 돕는 일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호주 코벤 대학에서 인류학을 강의하는 페트리시아 셰우드(P. Shewood) 교수가 온라인 불교저널 '불교윤리' (Journal of Buddhist Ethics)에 게재한 '호주 불교계의 사회 복지 공헌도'라는 논문은 따르면, 호주의 불교단체 319곳 중 314곳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초외된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다.

지구촌 불교 / 호주 불교계 사회복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314개 불교단체에서 호스피스 서비스(54%), (61%), 재조사 지원(39%), 마약중독자 재활(24%), 푸드 बैं킹(Food Banking, 52%), 인권·낙태 등 사회문제 참여(61%)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셰우드 교수는 "이는 호주의 불교단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환원하는 과정을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교단체들이 복지 프로그램의 다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복지 분야에서의 불교계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문은 따르면, 멜버른, 시드니, 투움바 등 호주 주요 도시에 본원을 설치한 서구불교도교우회(The Friends of Western Buddhist Order)는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보시 법회'를 열고 있다. 교우회는 이때 인과법을 주제로 한 특강을 마련해 도시 빈민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한편 후원품도 전달하고 있다.

국제불광회(The Buddha Light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매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윤리 토크쇼'를 개최한다. 낙태, 이혼, 동

호스피스·푸드뱅크·재조사 돕기

“부처님 가르침 사회화” 다양한 실천

성애, 자살, 마약중독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토크쇼는 미래의 불우 이웃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제불광회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성인병 예방을 위해 채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호응이 대단하다.

1백여 병상을 마련하고 죽어가는 노숙자와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관세음보살 호스피스(The Hospice of Mother Tara), 마약이나 알콜 등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팔팔달 그룹(Palpal Dharma Group)도 호주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셰우드 교수는 "이러한 현상은, '서양은 사회참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차원에서 설명되기보다는, 사서제와 팔정도를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가 호주 불교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호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1860년, 이후 호주의 항구도시인 멜버른에 상좌부 계열의 불교단체가 1952년 처음 결성된 이래 중국, 일본, 티베트계 불교 단체들이 속속 생기면서, 현재 319개 불교 단체(2001년 8월 기준)가 활동하고 있다.

셰우드 교수는 <호주불교사>(History of Buddhism in Australia)의 저자 필립 휴즈(P. Hughes)의 말을 인용, "호주 불교인은 지난 15년간 3만5천여 명에서 20만여 명으로 약 500%의 급성장세를 보였다"며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가르친 자본주의에 지친 호주인들이 나눔의 삶을 가르치는 불교에 깊이 매료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불교단체들이 복지에 관심을 쏟는 현상이 불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a.com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증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회귀복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흡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 둘째, 한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속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경계가 됩니다. 즉, 인체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종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정강 대진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 목초 수액 시트 -

화제의 발 건강법

● 목초 수액이란? 나무가 지하로 부터 물을 빨아올리는 힘에 의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뿌리로 부터 수액을 빨아 올려 위로 가는 사이에 깨끗하게 정화된다. 이 원리에 의하여 발바닥에 붙여 여분의 수액과 노폐물을 빼주는 방법이다.

● 배독요법으로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나무의 천연성분을 분말로 만들어 발바닥과

환부에 붙여 수독을 배출 혈액을 깨끗이 정화하여 몸이 가벼워 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수분인데 여기 오일된 수분을 제거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잠자는 동안에 배출한다
전신이 편안한 상태인 수면 중 발 바닥으로 부터 뇌로의 자극전달이 제일 좋으며 낮에 활동하면서 아래로 쌓인 노폐물을 잠자는 사이에 빼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용천에 시트를 붙이면 수분의 빠짐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21C 새로운 건강법 목초 수액시트
우리 몸안에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몸에 대사기능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인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우리몸의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다.

-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항상 서서 근무하시는 분
- ◆ 운전신수 ◆ 항상 물 컨디션이 불편한 분
- ◆ 가정주부 ◆ 산후조리, 시고 저편 손발
- ◆ 금어린 근육, 어깨, 무릎, 머리 등이 상체에 집니다.

☆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선물!!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의약품이 아닙니다)
우체국 014092-06-011003 (예금주) 김건순

Tel. 021455-6944, 021453-5851

간 첫개나무 열매로 간염치료!

(MBC 9시 뉴스데스크 2001년 2월 26일 보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암.....

- 첫개나무열매 입증 발표

- 2001. 1.30 MBC 9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 2001. 1.30 SBS 8시 뉴스 간질환(지방간, 간염)에 탁월한 효능 입증
- 2001. 1.30 SBS 신물질 개발

숙취와 위장에 좋은 첫개나무열매(지구자) 해장국
나천수 박사(산림청 임업연구원 박사)
간기능을 회복시켜서 간염이나 지방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과정

원재료 및 성분 배합 비율 : 첫개나무열매(지구자) 95%, 줄기 2%
잎 2%, 껍 1% - 국내산 100%

첫개나무 열매(지구자)를 무색소 무방부제 무첨가물을 특수가공 추출기로 고유의 색상과 맛을 유지하면서 성분 파괴가 되지 않도록 온도 약 100-110가 넘지 않게 6시간 이상 달여서 100mg씩 포장, 1달분 60포로 주문 판매 및 통신판매를 한다.

첫개나무열매(지구자)

자료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문의전화 041-852-0468
041-852-0469

민속식품(민속농원)